

『하나님의 창조』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 사람을 비롯하여 우주는 창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순서와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창조의 근본 뜻인 본질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세계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와 질서를 드러내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왕권이 실제 세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우주가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계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 계획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조의 순서와 목적을 연구하는 일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이해하는 신앙의 기초이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창조가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과 회복까지 포함하는 큰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 첫 번째,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한 ‘태초의 창조’(מְרִא בָרָא)이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작이나 가공과 다른 개념으로, 존재 자체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를 시작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 주권을 보여준다.

- 두 번째,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מְרִא בָרָא)하나니> / 계 21: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도 동일한 ‘바라’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단순한 개조나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 질서의 시작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방식과 같은 권능으로 미래의 세계를 다시 여신다는 뜻이다.

‘새 창조’가 ‘처음의 창조’와 같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조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시므로, 태초의 창조 안에는 이미 새 창조에 대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에 새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구속과 완성의 질서를 계획하셨으며, 인간 창조 역시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을 흠으로 지으신 사건 자체가 단순한 생명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세우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선악과의 존재는 인간에게 선택과 순종의 가능성을 주는 요소로서, 타락의 가능성과 함께 구속의 계획까지 포함된 창조 질서를 보여 준다.

이는 창조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처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 이미 준비된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창조는 시작이고, 구속은 과정이며, 새 창조는 창조 때부터 계획된 완성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타락 이후에 급히 마련된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 속에 이미 포함된 궁극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새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창조는 이 완성을 향한 출발이며, 타락과 구속의 역사는 그 완성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정리하면, 이사야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갑자기 생겨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던 때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

창조 속에 이미 완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 세워진 나라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다. 여기에서 ‘끝’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한다.

‘레쉬트’는 우연한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그 끝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תָּמַד קָלָא)>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ἀρχή)과 마침(τέλος 완성)이라>

‘태초의 창조’는 ‘천지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로 끝났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자 절정임을 보여준다.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 세계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진다.

그 이후부터 인간의 타락 등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일이다.

(섭리. Providence :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지속적인 통치)

타락은 창조 질서 밖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안에서 진행되며 구속 계획 속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태초의 창조’는 현재 우리 우주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며, ‘새 창조’는 ‘태초에 창조’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사라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하늘과 지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진행임을 보여 준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질서로 이어진다.

‘새 창조’는 ‘태초의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희망이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현재 삶의 윤리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세계에 대한 소망 위에 서 있다.

이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신앙은 현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밝힘으로써, 장차 나타날 새 창조 곧 새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해야 한다.

<창 1:1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יְהוָה אֱלֹהִים בְּרֵאשִׁית בָּרָא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레쉬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

“태초”(רֵאשִׁית) : 첫째. 처음. Beginning.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막연히 오래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출발하는 최초의 지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개시(initiate)나 과정(course)의 첫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즉, 역사라는 흐름 자체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뜻이다.

‘태초’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고,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순간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시점인 ‘창조의 기원’(순간과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이심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한(infinite)하심과 편재(omnipresent)이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며,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태초’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행동이 역사 안에 나타난 첫 사건이다.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빛’을 나타내셨고, ‘태양과 달’,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혼돈에서 질서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창조의 진행 과정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어느날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품으셨던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시작’(창조)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된 역사이며,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현실 세계 역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출발한 것이다.

“하늘들”(רָמָד שָׁמַיִם) : 가시적인 하늘(Sky)과 불 가시적인 하늘(Heavens).

이는 물리적 우주와 영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다.

“지구”(אֶרֶץ 에레츠) : 우주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행성인 ‘지구’를 말한다. (1:9 ‘물’인 ‘땅’과 구별)

여기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인간 거주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늘’이라는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지구’라는 넓은 땅을 만들어 두셨다. 이 하늘들과 지구가 함께 전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 세계가 질서와 구조를 가진 체계임을 보여준다.

이 하늘과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다른 부분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샤마임)과 땅(에레츠)’을 비롯하여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 명령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지배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세상은 ‘악’(bad)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본질적으로 ‘선’(good)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관계가 조화로웠음을 보여준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미완성으로 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가 질서 형성의 과정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된 구조를 한 번에 두시는 대신,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를 세워 가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진행하셨다.

이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단계적으로 조직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 ‘혼돈’(תוֹהוּ 토후): 형태 없음, formlessness. 혼돈 confusion, 공허. 텅빔 emptiness.

‘토후’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기능과 목적에 맞게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재료는 있으나 조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공허'(קוֹמָה 보후): 텅빔. 황무지.

이것은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초기 환경이다. 혼돈이 '형태 부족'이라면, 공허는 '내용 부족'이다.

- '흑암'(חֹשֶׁךְ 호세크): 어두움. 빛의 반대.

여기서의 어두움은 도덕적 악이나 사탄적 상태가 아니라, 빛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물리적 어두움이다. 그러므로 이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속한 초기 단계이다.

이 흑암은 빛의 상대물로서 물리적 의미의 어두움이며, '악'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이다.

창세기 1장의 어둠은 죄의 상징이 아니라 빛이 아직 분리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하늘'은 하나의 공간(space)으로 형체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실체이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가 자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실제적 구조이다.

'지구'는 실체가 있는 물체적인 형태이다.

즉, 하늘은 공간적 구조, 지구는 물질적 구조의 시작을 나타낸다.

처음 창조한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였다. (혼돈과 공허)

이는 존재 부재가 아니라 아직 질서와 생명이 채워지지 않은 준비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영'(רוּחַ רוּאֵה): 하나님께서 친히 활동하심을 나타냄. (창조의 능력)

'영'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 임재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창조 과정에 개입하셨다.

- '수면 위에' : '안개'로 인해 지구의 땅이 젖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아직 땅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수분이 환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후 생명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운행하시다'(רָחַף 라하프) :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호하고 준비하는 돌봄의 이미지이다.

창조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텅빈 '땅'을 살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한다.

창조는 "준비 → 채움 → 완성"의 단계적 진행이었다.

<창 1:3-5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의 창조이다.

이는 창조 질서가 생명과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빛'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질서 형성과 생명 준비의 첫 단계이다.

- 이 '빛'(אור 오르)은 '발광체'(마오르. 태양. 달. 별)와는 다르며, 어떤 재료나 물리적인 힘도 가해지지 않은 스스로 빛을 내는 순수한 '빛'을 의미한다.

즉, 이 빛은 광원체의 빛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부여된 빛이다.

아직 태양이나 별이 만들어지기 전이므로, 이 빛은 창조 질서의 근본적 빛이다.

- 이 '오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난 '빛'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 '빛'으로 드러내시며 피조물에 대한 창조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

- 이 '오르'는 생명 자체를 의미하며, 이 '오르'에서 나오는 'Energy'로 말미암아 우주가 움직이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생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질서와 에너지의 출발점이 바로 '빛'(오르)이라는 의미이다.

- 이 '오르'는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밖에(outside) 존재하고 있지만, '오르'는 하나님 안에(within)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빛'(오르)은 단순한 물질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된 창조 질서의 핵심 요소이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빛'을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라 생명과 계시의 상징으로 확장해 해석한다.

<창 1:3 빛이 있으라'(אור ואי אור) 하시니 '빛이 있었고'(אור ואי אור)>

'와에이'(ואי)는 '하야'(היא: 있다. 되다)의 연속형으로 '그리고~되었다. 그리고~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단계적으로 진행됨을 나타내며, 천지를 제외한 피조물의 창조는 '빛'이 나타남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와에이 오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빛'(오르)을 계획하셨음을 뜻한다.

'빛'은 창조는 즉흥이 아니라 계획의 실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와에이 오르'는 창조가 아닌 말씀에 의해 실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현실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의 '와에이'는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실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현실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빛'이 생기므로 처음 만들어진 지구의 어두움(흑암)과 분리되었고, '빛'(오르)을 '낮'(יום)으로 '어두움'(חשך)을 '저녁'(ערב)이라 '칭'하였다. (우리의 '낮'과 '밤'과는 개념이 다르다)

'빛(오르)과 어두움(חשך)'의 '낮과 밤'은 광채 창조 전의 개념적 구분이고, 1:18 해와 달이 주관하는 '낮과 밤'은 창조 후의 자연적 구분으로서, 물리적 질서를 의미한다.

‘빛과 어둠’의 ‘낮과 밤’은 광채 창조 전의 개념적 구분이고, 해와 달이 주관하는 ‘낮과 밤’은 창조 후의 자연적 구분이다.(첫 구분은 질서 개념, 둘째 구분은 물리적 질서이다.)

<1:5 저녁(에레브)이 되고 아침(보케로)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의 단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유대적 하루의 관습으로, 하루를 ‘어둠’에서 시작하여 ‘빛’으로 나가는 흐름을 의미한다.

창조 질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시간 흐름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구조를 뜻한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워 가신다.

역으로 하루는 어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하여 빛으로 시작됨을 나타낸다.

‘첫째’(רִאשֹׁנָה 에하드) : 하루(day)가 아니라, 창조의 ‘첫 번째 단계’임을 의미한다.

<창 1:6-8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우주는 셀 수 없는 항성과 행성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로, 측량할 수 없지만 끝은 분명히 있다.

이는 우주가 무질서한 무한 공간이 아니라 구조와 경계를 가진 질서 체계임을 의미한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조직된 구조를 가진다.

<행성(Planet) :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 / 항성(Star) : 핵융합에 의해 빛을 내는 별>.

이 항성도 ‘오르’로부터 ‘energy’를 받아 반응을 일으키므로 이 역시 ‘마오르’이다.

항성조차 근원적 빛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에너지를 받아 작동하는 ‘2차적 빛의 존재’이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태양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도 과학적으로는 행성이지만, 창조 과정에서 볼 때는 ‘발광체’와 근원이 다르다.

지구는 생명의 무대이며, 발광체는 기능적 보조 역할이다.

‘마오르’는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이지만, ‘지구’는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땅과 바다의 분리>

- ‘궁창’(רָקִיעַ 라키아) : 창공 firmament, 넓게 퍼진 공간. 광활한 공간.

이는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확장된 공간 질서를 의미한다.

‘궁창’ 원어의 의미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펼쳐진 공간을 지칭한다. (구분과 질서의 구조)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시고 물들을 나누셨다. (물 순환과 생명 환경의 준비)

이는 ‘아랫물’과 ‘윗물’ 사이를 구분하는 ‘대기권’을 가리킨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환경 조성)

궁창 ‘아래 물’은 바다와 강, 호수의 바닥돌과 같은 땅에 있는 ‘보통 물’이다. (생명 기반 자원)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 형태로 된 물이다. (기후 체계 형성 요소)

하나님은 수증기를 위로 올리고 그 중간을 대기권(가스층)으로 만드시고(생명 보호 개념), 창공 위의
윗물과 창공 아래의 아랫물의 경계를 삼으셨다.

하나님은 구름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통하여, 그 물들의 경계를 통제하셨다.(대기권)

(시 104:9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궁창 위의 물은 물 분자로서 대륙권 지상 (10-18km) 위에 광활한 수증기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더 높이 성층권까지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수증기층은 200-300마일 까지 펼쳐져 있으며, 그 수증기층을 지구에 있는 바다 물과 같은 밀도로
압축한다면 5마일 두께의 물이 될 만한 양이라고 한다.

대홍수 이전에는 대기권밖에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어서 방사능을 차단하거나 여과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보호막이 되어 노화를 방지하고 인간을 장수하게 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인 홍수로 말미암아 이 보호막 역할을 했던 수증기층은 비가 되어
쏟아지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후 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창 1:9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물’(מַיִם) 압바사) : 마른 땅. dry land. 육지.

‘지구’와 구별된다. ‘지구’(에레츠)는 행성 전체 개념이고, ‘물’(압바사. 땅)은 그 지구 표면 중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을 뜻한다.

‘지구’(에레츠)는 ‘물’과 ‘바다’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형태가 된다.

창조 질서는 분리와 구분을 통해 구조를 완성해 간다.

처음의 ‘땅’은 수막으로 인해 젖은 ‘땅’이었다.

이는 아직 생명 활동에 적합한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초기 상태를 묘사한다.

그 젖은 땅에서 수분을 분리한 땅이 ‘물’(육지)이고, 분리한 수분이 모인 것이 ‘바다’이다.

<창 1:11-12 땅의 역할>

하나님께서 ‘땅’(압바사)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채소’와 ‘과실수’를 있게 하신 것이다.
이는 생명 유지의 기초를 먼저 준비하셨음을 보여준다.

‘땅’을 통하여 스스로 생겨나게 하셨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전제로 하되, 창조 질서 안에 번식 구조를 두신 것이다.

(11절 ~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 12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내라 하시니’(נָתַן דַּשָׁא) : 싹트다. 생기다. (생명이 땅을 매개로 나타나는 구조이다)

‘내니’(נָתַן יָצָא) : 나오다. 나타나게 하다. (하나님 말씀의 결과가 현실로 드러남을 의미한다)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야차) 하셨다.(전능)

<창 1:14-19 (넷째 날) 하늘의 역할> Heavens (16→17→14→15→18)

‘광명체’(מִנְיָן 마오르): 행성(planet.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 + 항성(star. 스스로 빛을 내는 별)
‘마오르’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기능체이다.

우주의 기본 단위는 ‘별’로서, 질서 있는 구조를 이루는 구성단위이다.

태양은 우리 지구에 속한 ‘별’로서 지구 생명 유지와 밀접한 기능을 수행한다.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은 ‘정조’(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며, ‘계절’(season)과 ‘날’(day)과 ‘해’(year)로 ‘세상의 시간’(크로노스)을 정하셨고,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 ‘낮’과 ‘밤’을 나누시어 낮에는 ‘빛’을 비추게 하시어 생명체의 성장을 돕고, 밤에는 어두움을 두어 안식케 하시었다.

그러므로 ‘광명체’는 사람과 생명체를 보호하고, 그 생명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소’, ‘과실수’의 번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샤마임)은 ‘하나님 나라’와 ‘광명체’들의 ‘처소’(공간)이다.

<‘카이로스’(καίρος)와 ‘크로노스’(χρόνος)>

‘카이로스’는 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는 목적과 의미 중심의 시간 개념이며, ‘크로노스’는 광명체 운행과 함께 시작된 세상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말한다. (‘크로노스’도 ‘카이로스’ 안에 존재하며 운행되고 있다)

<창 1:20-22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창조>

<창 1:20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물들’(מַיִם 마임) : waters.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 (샘, 지하수)

‘바다’(בַּיָּם 야ם) : sea. 1:6.10절 아랫물이 모인 곳. 물이 모인 특정 영역.

21절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이란, 바다짐승과 서식하는 물고기류들을 말한다.

<창 1:24-25 (여섯째 날) 땅의 가축과 짐승 창조>

21절 물고기와 새들은 ‘창조’(בָּרָא)하셨고 → 생명 기원의 직접적 행위이다.

25절 땅의 가축과 짐승은 ‘만들었다’(אָשָׂא) → 구조 형성 또는 조성 개념이다.

‘아사’는 창조의 기능을 구성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지속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호흡하는 생물과 인간의 ‘바라’(בָּרָא)는 생명 중심 존재의 직접 창조이다.

여기서 ‘아사’(אָסאָ)로 기록한 것은, 창조 과정에서 관련된 대상들을 ‘조성’(בָּרָא 야차르)하거나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후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계속 운행하고(exert)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사’(אָסאָ)이다.

(피조물의 창조에서 ‘천지(하늘과 땅)와 호흡하는 생물들. 그리고 사람’은 ‘바라’(בָּרָא)의 창조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사’(אָסאָ)의 창조이다. - ‘아사’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

생물 창조는 서로를 support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make)위함이다.

초기 창조 질서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였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피 있는 생물은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뱀을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동물 간의 균형은 무너졌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의 공존도 깨어졌다. 여기서 뱀에 대한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므로,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할 수 있다).

<창 1:26-27 사람의 창조>

(1:26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해 두신 것으로,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사 43:7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며 함께 공존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우주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도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인간이 창조의 마지막에 등장했지만, 목적의 중심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인 빛, 공기, 물, 식물, 시간 질서를 준비하신 뒤 인간을 두셨다. 따라서 창조의 순서는 인간 중심의 설계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주는 인간 존재의 무대이며, 피조물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환경적 요소들이다.)

<26-27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아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바라)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바라)하시고...>

26절은 하나님의 의논과 계획, 27절은 실제 창조의 실행을 보여준다.

‘아사’와 ‘바라’가 함께 쓰인 것은 사람 창조가 단순 형성 이상의 특별한 창조임을 나타낸다.

‘형상’(בְּצַל חֵלֶם) : image. 내면적 형상. 이는 외형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의미이다.

‘모양’(מִדְּמוּת 데무트) : 유사한 것. 같은 모양. 내면적 닮음.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인격적 특성, 즉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형상’은 특정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 우리의 모습은 ‘외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에 있다.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격적 존재성에 있다는 것이다.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야차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하야)>

인간은 물질(흙)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된 존재이다.

여기서 ‘생령’은 단순 생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적 존재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고(외면적),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생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적, 지적으로 닮았다는 것이다.(내면적)

(형상은 육체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차원과 인격적 능력에 있다.)

이러한 인간 창조는 인간이 특별한 피조물의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또한 이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피조 세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청지기적 통치자이다.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 두 단어가 다 사용되었지만, 27절에서는 오직 ‘첼렘’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형상이 ‘본질’이고, 모양은 그 형상의 표현 구조임을 보여준다.

(26절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아사)’는 27절 ‘형상’으로 창조한 남녀를 ‘사람’으로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형상’(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흙으로 ‘지으시고’(야차르. Form. 외관. 모습),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므로 ‘영이 살아나’(생령. 하이 네페쉬)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모양인 ‘생기’가 결합하여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영)은 ‘흙’으로된 사람의 육체에 있지 않고, 생기를 부어 ‘생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모양’(지·정·의)과 함께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내면적 형상) 여자인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함께 창조한 후, 아담의 갈비뼈(צִלְבָּתַי צֶלֶל라)를 통하여 ‘생기’를 주시므로 형태를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창 2:22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מִן הָאֵדָם 바나. 준비된 것을 나타냄)>

사람은 ‘형상’(첼렘. 영)만이 아니라, ‘모양’(데무트)과 함께한 ‘영혼’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영)은 ‘흙’으로된 사람의 육체에 있지 않고, 생기를 부어 ‘생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모양’(지·정·의)과 함께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내면적 형상

<‘지·정·의’ : ‘지’(知. Intellect) : 지식, 지혜, 인식, 분별, 이해 / ‘정’(情. Emotion) : 감정, 사랑, 희로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 ‘의’(意. Created) : 뜻, 의지, 결정,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을 알고(지), 사랑하며(정), 선택하는(의) 기능이다.

사람이 생각하고, 육체(Form)를 지배하는 것은 ‘혼’(Soul)이다.

이 ‘지·정·의’로 인하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혼’(Soul)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혼’(Soul)을 지배하는 것은 ‘영’(Spirit)인 것이다.

‘데무트’(혼)가 없어도 ‘첼렘’(영)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왜 ‘데무트’가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함께 공존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이 ‘지·정·의’는 그 자신의 ‘뜻’과 ‘생각’에 의해 나타난다. (여기에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이 ‘지·정·의’에 의해 ‘첼렘’(형상)으로 창조된 ‘영’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과 ‘혼’의 결합체이다. 물질, 생명, 영적 본질이 결합된 독특한 존재 구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시므로 온전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첼렘)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인 사람이 된 것이다.

아담 역시 ‘영’으로 창조(바라)하시고, 그 위에 ‘흠’으로 사람의 형체로 ‘만드시고’(야차르) 그 형체 안에 ‘생기’(데무트)를 주시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양’(데무트)은 ‘형상’(첼렘)에 의해 ‘제한’(Restriction Limited)된다.

(형상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체는 ‘영’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 그 자체이시며, 그 존재 안에 물질이나 피조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과는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의 본질’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영’의 본질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절대 권세와 창조주적 속성을 가지지만, ‘사람의 영’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죽음은 이 ‘영혼’이 흠으로 지은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때 육신은 유기질로만 남아 썩어지거나 사라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혼’의 차이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하여 생명이 있는 것을 ‘흙’으로 지으셨다(아차르. 완성 창2:7).
사람과 각종 생물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방법과 존재 목적이 다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 위에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반면 각종 생물은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동물의 ‘혼’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생명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동물의 죽음은 그 생명 활동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가 단순히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현재의 하늘과 땅의 질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된다.

<계 21:1 새 하늘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이다.

<창 2:1-3 (일곱째 날) 마침과 안식>

<2:1-2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이루어졌다’ / ‘마치시니’ (כָּלָה 칼라) : 이는 단순 중단이 아니라 목적 성취를 뜻한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완전하게 수행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이 없는 완전한 실행이었다.

창조는 부분적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2:2-3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은 시간 중 한 날을 구별하는 창조 질서의 완성 선언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여섯 번째 ‘사람의 창조’로 끝이 났다.

‘일’(עֲמָלָה 멜라카) : 이는 단순 활동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사역을 의미한다.

일곱째 날에 마침은 창조사역 외에 또 다른 사역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창조사역을 끝내고 ‘안식’하였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완성된 질서 위에 안식이 선언되었다.)

“안식”(שָׁבַט 사바트):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안식’은 ‘쉼’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연속성’을 의미한다.

창조 이후 운행과 목적 성취의 단계로 전환됨을 뜻한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계획하신 것들을 완성하시므로, 창조사역은 마치시고 그 피조물을 운행하시기 위해 다음 계획을 준비하신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식은 중단이 아니라 통치 방식의 전환인 것이다.

2:8절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설립하신 것은 창조 계획을 실제로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안식’은 ‘쉼’이 아니라, 완성된 창조물을 운행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의 연속성이라 할 수 있다.

‘창조’는 **2:8절**을 위한 1차 준비 과정이었고, ‘안식’은 **2:8절**의 2차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은 구별되어야 한다>

<출 31:13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사역,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 운행하시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셨다는 뜻이다.

반면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 목적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나라의 역사 속 실현은 사람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시려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계획의 연속성이었듯이, 사람의 ‘안식’ 역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는 연속성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날이다.

안식을 ‘쉼’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출 20:8-11>에 근거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칠일은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가 옛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활동을 멈추라는 의미를 넘어,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 창조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억과 예배의 시간이다.

<막 2:2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안식이 사람을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행하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그 안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밝히신 것이다.

<창 2:3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을 모두 이루신 일곱째 날을 신성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창설되어 시작하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단순한 시간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된 날로 이해할 수 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어야 한다.

<창 2:8 창조의 본질>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조의 목적이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공간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거할 구체적 장소를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다.

그 뜻을 이루시고자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다.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는 시작점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창조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 단계이다.

국가는 ‘주권’, ‘영토’, ‘백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하는 구조적 틀이다.

‘에덴’이라는 ‘영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으로 국가가 형성되었다.

창조 직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타난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 ‘영토’는 아니다. 통치 범위와 실제 거주 영역은 구분된다. 그래서 먼저 ‘백성’이 살 수 있는 ‘영토’인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 ‘지구’ 안에 계획하신 ‘나라’인 ‘에덴동산’을 세우신 것이다. 에덴은 창조 목적의 중심 무대이다. 사람에게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은 그 뜻을 준비하는 과정인 ‘안식’이었다. 이 ‘안식’을 통하여 에덴동산을 세우시고 완성된 창조물을 운행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창설’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본질’이다.

<장 2 장 창조의 관계>

창세기 1장은 세상의 규칙과 규정을 세우신 창조 순서를 보여준다.

창 1:1부터 물질의 ‘창조순서’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다.

창 1:1~2:3까지 ‘창조순서’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 천지와 빛의 창조와 어두움을 분리.
- 두 번째 : 물과 궁창을 창조. → 하늘과 땅을 구분.
- 세 번째 : 열매. 채소. 나무 창조. → 땅과 바다 구분.
- 네 번째 : 광명체(해/ 달/ 별) → 시간. 날. 년. 계절과 절기 구분.
- 다섯 번째 : 새와 물고기 창조.
- 여섯 번째 : 땅의 생물과 사람을 창조.
- 일곱 번째 :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함.

창세기 2장이 1장의 창조순서와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또 다른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창세기 1장이 ‘무엇이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면, 창세기 2장은 ‘왜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다.

즉, 1장이 ‘구조의 창조’라면, 2장은 ‘관계의 창조’이다.

1.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창 2:7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장면은 단순한 인간 형성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으신 후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존재, 즉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났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된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부여함으로 하나의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영역을 허락하셨다.

이 선택이 있었기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자연과 사람의 관계

<창 2:19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 두셨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은 단순한 언어 행위가 아니라, 다스림과 책임의 선언이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존재를 인식하고 구분하며 책임 아래 두는 행위이다.

창 2:10 이하에 등장하는 네 강의 이름 역시 자연이 인간의 삶과 분리된 배경이 아니라, 인간 삶을 지탱하는 질서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도록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하는 청지기적 존재로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규칙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 속에서도 질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선악과’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사람과 자연’에 대한 규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인간은 자연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관리자일 뿐이다.

3. 사람과 사람의 관계

<창 2:18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조 세계에서 ‘좋지 아니하다’는 첫 선언은 인간이 혼자 존재하는 상태였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어졌음을 보여준다.

하와의 창조는 단순히 배우자의 제공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는 선언이다.

<창 2:24 이렇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부부는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단위로 표현된다.

이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 구조인 가정이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부부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로 함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관계’를 초월하는 ‘부부의 관계’를 성립하였다.

부모와의 독립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됨으로, 가정이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세워졌다.

책임과 헌신, 생명까지 포함하는 창조 질서의 연장선인 것이다.

창세기 1장이 <물질세계의 창조>를 말한다면, 창세기 2장은 그 ‘물질세계’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관계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물질이 없다면 관계도 성립되지 않지만, 관계가 없다면 물질 창조의 목적도 사라진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관계, 모두가 ‘뱀’의 사건으로 인해 깨졌고, 성경은 이 상태를 ‘죄’(원죄)라고 부른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지금은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이다.

구원은 단순히 형벌 면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아담으로부터 무너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자연과 사람’의 질서 회복이며, 서로 용서하는 기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본질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이며, 구원의 목적 역시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다.

<Epilogue-1>

성경은 ‘천지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새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끝난다. (계21장)

→ 성경 전체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나라의 완성이로 이어지는 구속 역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 21:6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창조와 완성의 주체가 되심을 나타낸다.

창1장 ‘창조’의 목적은 계21장 마지막 완성된 ‘새 하나님 나라’이다. (창조의 본질)

→ 창조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점이다.

이 모든 사역은 아담으로 인하여 달렸던 ‘에덴동산’을 ‘새 에덴동산’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이다.

→ 구속 역사는 잃어버린 질서의 회복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시고자 ‘Incarnation’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를 통하여 앞으로 나타날 ‘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정체성’을 찾아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창조 이해는 인간 존재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한다.

<계 21:4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 새 창조는 고통과 죽음이 제거된 완전한 질서를 말한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 세상(κόσμος 코스모스) : 우주. 즉 피조물의 전체인 세계를 의미한다.

- . ‘우주’로서 ‘코스모스’는 구약의 ‘하늘과 땅’의 동의어이다. (행17:24)

- . 우주(κόσμος)가 창조된 피조물 전체라는 개념은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되...>와 같은 구절들에서 표현되어 있다. (현재의 세상)

- . 요 3:16 ‘세상’(κόσμος)이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하나님 나라’라는 결론이다. (미래의 세상) 하나님의 ‘Incarnation과 성령’으로 오시어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는데, 그 완성된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창1장 ‘태초 창조’의 목적은 계21장 완성된 ‘새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Epilogue-2>

<창조 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창조 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때는 아직 “어디”(공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편재(Omnipresence)하셨다.

이것은 “여러 장소에 나뉘어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공간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무한한 곳에(장소가 아닌) 편재(어디에나 계심)하셨다.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으로서,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며, 동시에 어디에서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어딘가 한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의 존재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편재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셨고, 또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다.

<새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워져 존재하고 있었는가?>

사 65:17 ‘새 나라’는 이미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요14:2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나타내셨고, 눅16:19 ~ Ab과 거지 나사로는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부자를 통하여 ‘지옥(음부)’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새 하나님 나라’는 Ab 이전인 Adam 때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창조는 ‘천지’의 창조로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천지와 사람’의 창조 사이에 창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하늘들을 창조하셨는가?’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추론하여 보고자 한다.

첫 지구는 ‘하나의 하늘’(Heaven)만 있어도 존재할 수 있다.

지구의 생존에 필요한 ‘마오르’인 태양을 비롯한 행성은 첫 번째 하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Heaven이 아닌 2-3개의 Heavens를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다.

이 간증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창조’한 지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 지구 안에 ‘에덴동산’이라는 ‘나라’를 두셨던 것이다.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다.

선악과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1.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본질적 성품과 존재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외부에 있는 어떤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속한 본질적 특성이다.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속성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구분된다.

-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존재적 속성을 의미하며, 피조물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속성으로, ‘영성’,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주권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 존재이심을 보여준다.

-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인격적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속성으로, ‘사랑’, ‘거룩’, ‘공의’, ‘자비’, ‘은혜’, ‘진리’, ‘선하심’, ‘신실하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간 안에 나타나는 도덕적 속성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반영일 뿐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도덕적 속성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보여주며,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존재이시며, 동시에 사랑하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인격적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존재와 성품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속성 중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인간에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한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고유한 속성으로서 피조물은 가질 수 없다. 반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간에게도 제한적으로 반영된 속성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 도덕성, 의지와 마음, 생각과 뜻을 가지신 분이시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요소들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다.

그 결과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사랑하고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유적 속성’인 인간의 지식, 의지, 도덕성, 판단, 사랑과 같은 요소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서 이러한 속성이 나타나는 영역을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반영된 영역이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존재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 속성들은 피조물에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본질적 특성을 나타낸다.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관련된 속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절대적 속성은 인간에게 반영되는 도덕적 속성과 구별되며,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속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는 영성,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그리고 주권성이 포함된다.

이 속성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존재 안에서 통일적으로 나타난다.

- ‘영성’은 하나님이 영이시며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며 공간적 형태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물질적 세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러한 영성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편재성’과도 연결된다.

- ‘자존성’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외부의 도움이나 의존 없이 존재하신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를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자존성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준다.

- '무한성'은 하나님에게 어떤 제한도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존재, 능력, 지혜, 임재는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제한되지 않으며, 능력이나 지식에서도 한계가 없다.

무한성은 전능성과 전지성, 편재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 '영원성'은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시간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시간 이후에도 존재하신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현재로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 '불변성'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본질, 성품, 뜻,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피조물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불변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도 연결되며,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한다.

- '편재성'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되어 계시지 않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와 역사 가운데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구별되면서도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

- '전지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며, 외적인 사건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마음까지 아신다.

하나님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

- '전능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 '주권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역사와 세계와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권성은 전능성과 연결되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이심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 안에서 통일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 존재이심을 보여준다.

3.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윤리적·인격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인간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속성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반면, 하나님 안에서의 도덕적 속성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는 사랑, 거룩, 공의, 자비, 은혜, 진리, 선하심, 신실하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속성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자격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고 완전하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다른 도덕적 속성과 분리되지 않으며, 거룩과 공의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다.

- ‘거룩’은 하나님이 죄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성품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며 죄와 전혀 섞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한 도덕적 순결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 순전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공의’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성품이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류가 없고 완전하며, 감정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므로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비롯되며, 하나님 통치의 기준이 된다.

- '자비'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다.

자비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자비로 죄인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보여준다.

-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

은혜는 조건 없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와 연결되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 '진리'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며 참되신 분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참되다.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되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 '선하심'은 하나님이 완전한 선의 근원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도덕적 선의 기준이 되신다.

-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연결된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나타내며, 동시에 인간 도덕성의 기준이 된다. 인간의 사랑, 공의, 선함은 하나님 성품의 반영이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도덕의 절대적 기준이며, 인간의 도덕적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간의 도덕적 속성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 나타나는 도덕적·윤리적 성품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성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사랑할 수 있고, 선을 추구할 수 있으며, 공의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인식하며, 거룩을 지향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성향이 인간의 도덕적 속성이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반영적 성격을 가진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성품이라면, 인간의 도덕적 속성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변화가 가능하다.

인간은 사랑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며,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악이 섞일 수 있고, 공의를 말할 수 있지만 편견과 오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속성은 본질적이라기보다 하나님 성품의 제한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는 사랑, 선함, 양심, 공의감, 진리 추구, 거룩에 대한 지향성 등이 포함된다. 인간은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려는 성향을 가지며, 선과 악을 구별하려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은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정의를 추구하려는 공의감을 가지며, 거짓보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성향은 인간이 단순한 본능적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고, 선을 추구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으며,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불의를 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도덕적 속성은 존재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며, 선을 지향하면서도 악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적 성격을 가진다.

인간은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으며,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불의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인간의 도덕적 속성이 독립적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의 제한적 반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며, 동시에 하나님 성품을 향해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창조 단어의 의미 >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다르다. 그 단어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운행하시는 섭리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 “바라”(בָּרָא) : 창조하다. 만들다. 새로 만들어진 것(창시). create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는 것.
- 無에서 有로 형성된 것.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만 사용된 신학 용어이다.
-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이고 주권이다.

2. “아사”(אָסָא) : 만들다. 행하다. 이루다. 세우다. make.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이 ~>

- 창조 과정에서 관련된 대상들을 조성하거나 만드는 행위.
-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후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계속해서 발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성령의 역사)
- 예정된 목적(야차르)을 원성하기 위해 만들어 가는 과정.
(ex. 종으로 예정하시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되어 가는 과정)
-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사>에 속한다.

3. “야차르”(צָרַף) : 모양 짓다. 형성하다. Form, Frame.

<창 2:7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 바라에서 아사로 관련된 대상의 완성된 모양을 형성하는 것.
-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고안한다는 의미.
-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계획뿐만 아니라 예정된 목적을 뜻할 때.

4. “바나”(בָּנָה) : Build. 세우다. 건축하다. 짓다.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 ‘야차르’로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것.

창조는 1st 계획하신 것을 지으시고(바라). 2nd 이루어 가시며(아사). 3rd 완성 시키신다(야차르).

(빛이 있으라 명하시어 빛이 나타나기까지 과정이 ‘아사’이며, 빛이 비취 올 때가 ‘야차르’이다)

아담 1st 계획하시고(바라) / 2nd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아사) / 3rd 생령이 되었다(야차르).

하나님은 無에서 有로 시작하실 때도 있지만, 이미 있는 것에서도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창조”이다.